

'5월의 누이' 박경순씨 말기 간암 투병

「5·18묘지 '열린공간' 되길」

〈5·18 묘지 관리소장〉

「증언록」 발간 진상규명 앞장

'5월의 누이' 박경순(43)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사무소장이 최근 서울 아산병원에서 말기 간암 투병 중이다.

"5·18의 명예가 회복되고, 원통하게 가신 영령들의 무덤(국립묘지)을 날마다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단 하루도 피곤한 줄 몰랐고,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다는 사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5·18 묘지를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르다는 사실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박 소장은 현재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에서는 이미 간 곳곳에 암세포가 퍼져 수술마저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녀가 5·18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난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에서 오빠 병규(당시 20세·동국대 1)씨가 사수대로 나서 투쟁을 벌이던 중 세상을 떠나면서부터. 그곳 된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한 박 소장은 지난 1985년 조선대 회계학과에 입학한 뒤 '오월 청년 동지회'에 가입했다. 청년회장을 맡은 후엔 2년여에 걸친 자료 수집 끝에 희생자들의 넋이 담긴 '5·18 증언록'을 발간했다. 5·18 관련 서적으로는 최초 자료집인 이 책은 당시 전국적으로 5·18 진상규명 운동을 벌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박 소장은 지난 20여 년 동안 '청년 동지회'와 '유족회'에서 굵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지난 2005년 9월엔 80년 오월의 역사를 바로잡는데 몸을 아끼지 않은 공로를 인정받아 국립 5·18 민주묘지 초대 관리소장으로 선임됐다.

재임기간 동안 그녀가 남달리 신경 쓴 것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열린 공간'으로 만드는 것. 휴일 날 전통놀이 나 사람 나눔 꿈나무 행사 등을 자주 열어 참배객들에게 한 발짝 다가가는 국립묘지의 모습을 갖추는 데 노력했다. 5·18 역사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추모관 건립도 추켜들었다. 추모관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주말과 휴일을 반납한 채 공사 현장에 붙어 '잔소리'를 했기 때문이다.



말기 간암 판정을 받고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투병 중인 박경순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사무소장.

박 소장은 "국민에게 '5·18 민주항쟁'의 역사를 합법적으로 알리고 바로 잡을 수 있는 토대를 이해야 마련했는데, 암이 아니라 안타깝다"며 "훗날 '국립 5·18 민주묘지'가 열린 공간으로써 참배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원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게 마지막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alee@kwangju.co.kr

「고교 선수들 음란물 시청 막아라」

전국체전 선수단 숙소 TV 성인방송 차단 '비상'



숙박업소 담당자 236명 수시 관리·점검

「전국체전 고교 선수단 숙소의 성인방송을 차단하라.」

광주시와 일선 구청 숙박업소 담당직원들에게 내리진 특명이다. 이는 광주체전에 참가한 일부 고교 선수들이 묵는 방에도 포르노에 가까운 성인 방송이 여과 없이 송출되고 있어서다.

현재 광주체전 참가 선수단이 묵는 숙소는 ▲관광 호텔 15곳 ▲모텔 600곳 ▲여인숙·여관 300곳 등 총 915곳이다. 관광 호텔을 제외한 모텔이나 여인숙·여관의 경

우 케이블·위성방송을 통해 성인 방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

문제는 체전 참가자 총 2만3천 672명 중 고교 선수 9천193명(남 4천902명·여 4천291명)이 포함돼 있다는 점. 선수들은 경기가 끝난 뒤 주로 숙소에서 머무는데, 감독이나 코치 등 책임자들과 방을 따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성인방송을 아무런 제재 없이 시청할 수 있다.

또 지도자 입장에서 사전에 선수들에게 슬데없는 곳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충고도 하고 틈틈이 관리도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와 일선 구는 어린 선수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체전에 앞서 '성인방송 방영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친절교육을 세 차례 실시했다. 또 휴대전화 등을 통해 '객실 내 성인방송 중지 안내'를 발송했다. 30개 업소에서 서비스를 보내 업주들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각 구별로 고교 선수단이 머물고 있는 숙박업소 담당자 236명을 지정, 수시로 관리·점검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일 915개 업소의 성인방송 송출 여부를 직접 확인한 결과, 30개 업소에서 서비스 차단을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시정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모텔 등에서는 차단장치를 통해 성인방송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 같은 차단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더 많은 게 현실"이라며 "스포츠 행사라는 눈앞의 현실에 묻혀 청소년 교육이 가려지지 않도록 함은 물론 문화수도 광주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alee@kwangju.co.kr

나원침 (7328) 김장동



다들 물어봐... 신발재 KCC

DS건설(주) KCC청도, 영도, 대곡, 대곡, 대곡

KCC청도, 시스템청도 생산·시공

(주)본드나리 KCC신발재, KCC신발재

실리콘·방수제·접착제·타이프

인화학교 前 교장 5년 구형

장애학생 성폭행... 교사 등도 1~2년

광주지검 공판부는 10일 교내 장애학생들을 성폭행·성폭행한 인화학교 전(前) 교장 김모(61)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전 행정실장 김모(59)씨에게 징역 2년 ▲전 보육교사 박모(58)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전 교사 전모(42)씨와 전 보육교사 이모(36)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0~2004년 청각장애·지체장애 학생 5~6명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며, 전 교장 김씨는 교직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고교생 갈취 '한심한 조폭'

군고구마 장사 시키고 돈 뜯어

고등학교생들에게 군고구마를 팔게 하고 수익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가 1년여 만에 덩미를 잡혔다.

10일 광양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 광양 L과 행동대원 서모(24)씨는 지난해 12월께 평소 알고 지내는 고모(18)군 등 고교 3년생 4명에게 군고구마 통·고구마·장작 등을 사주고 새벽까지 군고구마 장사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 서씨는 하루에 3만원씩 상납받아 1주일간 84만원을 뜯어내 유혹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고등학교생들이 보복이 두려워 1년여 동안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서씨를 공갈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kwangju.co.kr

경계지역 사건·사고 관할권 다툼

해경·육상경찰 공조 시급

전남경찰 개선안 건의

전남지방경찰청은 보성 연쇄살인 사건과 완도 전복절도 사건 등을 계기로 해양경찰과의 공조수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 그 개선안을 10일 경찰청에 건의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육지와 해수면의 경계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경과의 공조 수사 체계가 미흡,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처음 사건 신고를 접수할 경우 수사단계부터 경찰이 단독 수사를 한 뒤 해경에 공조를 요청하고 ▲

변사체가 해상에서 발견됐을 경우 경찰과 해경이 합동심의위원회를 개최, 사건관단과 수사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전남청이 이 같은 개선안을 건의한 것은 지난달 보성에서 발생한 대학생 등 4명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 사체가 바다(독량만)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변사체 검사는 관할권이 있는 여수해경에서 맡았다.

하지만 해경의 검시결과 추씨의 사인은 의사로, 김씨는 외부 압력에 의한 추락사로 추정되면서 타살 가능성이 배제됐고, 처음 신고를 받았

던 경찰은 수사착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변사체 발견 당시 사체 검안과 법의학팀의 부검결과가 수사 방향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하다"면서 "해경 측에서 사인을 통보해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8월께 발생한 강진·완도의 전복 도난 사건도 마찬가지. '한국전북 협회 완도·장흥·강진·해남지회' 소속 전북 양식업자들은 해경이 전북 절도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자 전남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산물 운반차량에 대해 검문 검색과 육상과 가까운 양식장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수산물들이 불법 유통되는 육지 경로를 차단하는 게 전부였다.

경찰청은 조만간 해양경찰청과 전남경찰의 공조수사 구축 건의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체전 소프트볼 경기장 폭력사태



○제88회 광주 전국체전 소프트볼 경기장에서

광주지역 체육인이 서울·전북지역 협회 임원을 폭행해 물의를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30분께 광산구 신가동 세종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전북 원광대와 경기도 양양고등학교의 경기 도중, 전 광주소프트볼협회 전무이사 김모(43)씨가 대한소프트볼협회 최모(53) 상임부회장과 전북 선수단 이모(34) 코치의 얼굴 등을 때렸다는 것.

○김씨는 협회 운영 등에 불만을 품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회장과 이 코치는 입술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최 부회장 등이 자신들의 거주지인 서울지역 경찰에 고발할 뜻을 밝혀 가해자 김씨를 입건하지 않고 풀려났다"고 설명.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문화수도 광주 빙글을 환영합니다.

제88회 전국체육대회

기간 : 2007.10.8 ~ 10.14

우리병원은 전국체육대회 공식지정병원입니다

h **한인대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한성로 191번길 1

TEL: 041-241-5000

미세로이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미세로이로 11

TEL: 041-241-5000

광주현대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현대대로 11

TEL: 041-241-5000

안원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안원로 11

TEL: 041-241-5000